

# 나주시 “지역 곳곳 문화로 행복 배달합니다”

### 시, 문화소외지역·고령층 ‘문화행복 배달키움’ 사업 본격 추진 이야기 할머니·찾아가는 영화관...공연·전래놀이 보급 등 다채

문화로 행복을 배달한다.  
나주시가 시민의 일상 문화 향유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행복 배달키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령, 지역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소외지역 아동, 고령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주 이야기 할머니”, “신나는 전래놀이”, “찾아가는 영화관”, “시립예술단 공연” 등 세대·지역별 맞춤형 문화 시책을 찾아가 제공한다.  
나주시 문화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한 이야기 할머니들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찾아 나주의 옛 설화를 들려준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후손들을 위한 지혜의 창고다.  
나대용 장군, 왕건과 버들잎, 잃어버린 금동신발을 찾아서 등 나주 옛 역사를 아동 눈높이에 맞춰

흥미로운 동화 이야기로 풀어낸다.  
벽·오지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청년 활동단체와 협업을 통해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영상 시설을 설치해 연 40회 상영한다.  
나주시가 문화인력으로 양성한 전래놀이 지도사들은 휴대용, 디지털 기기 놀이 문화에 익숙한 아동, 학생들에게 놀이 문화를 보급한다.  
나주시전래놀이연구회 ‘술래’ 소속 지도사들은 올 170회 보육시설, 경로당 등을 찾아 공동체, 전래놀이를 배달한다.  
시립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나주시립예술단도 마을회관, 경로당, 문화센터, 각급학교 등에서 문화공연을 펼친다.  
예술단 공연은 객석과 경계를 허문다. 시민들은



나주시가 문화인력으로 양성한 전래놀이 지도사들이 지역 어린이집을 찾아 신나는 전래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공연장을 찾지 않더라도 일상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행복지수를 높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문화는 기쁨과 치유의 도구

로 주민들에게 위로”라며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문화 배달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성군, 군정업무 보고회 상반기 실적·하반기 계획 등

장성군이 최근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회’를 갖고 새로운 장성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보고회에서 군정주요업무 319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장성의 미래 발전 원동력이 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1천만 장성 관광시대를 열어가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농업 육성’에 관한 보고도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보완해 6월 장성군의회 제351회 1차 정례회 업무보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정주요업무에 관한 실적 및 계획을 포괄적으로 점검해 희망찬 미래, 새로운 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담당 업무에 적극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 시티투어 4년만에 재개...KTX나주역서 출발

### 정기코스·힐링코스·포토스팟코스 등 테마별 여행노선 준비

매주 주말 버스 타고 천년고도 목사(牧使)고을 나주의 대표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나주시 시티투어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 시티투어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나주의 주요 역사문화, 생태경관 명소를 하루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다.  
매주 토요일 역사문화체험 중심의 정기코스와 둘째 주일요일 ‘힐링코스’, 넷째 주일요일 ‘포토스팟코스’로 테마별 여행 노선을 3개 코스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여행 시간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5시5분까지로 모든 코스가 동일하다.  
올해부터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이용 편의를 위해 전체 코스 출발점을 기존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KTX나주역으로 변경했다.

매주 토요일 정기코스는 KTX 나주역에서 출발해 ‘국립나주박물관-나주읍성-영산강 황포돛배-천연염색박물관-북암리교분전시관-KTX나주역’ 순으로 운행한다.  
생태 경관과 치유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춘 힐링코스는 ‘영산포철도공원-황포돛배-중식-산림자원연구소-도래한옥마을-불회사’를 경유한다.  
포토스팟 코스는 ‘빛가람호수공원 전망대-산림자원연구소-중식-나주읍성-영산포철도공원-우습제-느리전망대’ 순으로 사진 찍기 좋은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버스 탑승료는 성인기준 4000원이며 경로대상자·아동·국가유공자 등은 50% 할인(2000원)된다.



오는 11월 12일까지 운행하는 ‘나주시 시티투어 버스’. <나주시 제공>

사전 5명 이상 예약 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여 좌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현금결제라도 탑승할 수 있다.  
나주시 시티투어 사전 예약은 ‘나라고속관광’(www.narabus.co.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여행 노선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 ‘시티투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담양-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담양군 문화체육과와 장성군 장성읍사무소가 ‘담양군-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강성령(사진 가운데 왼쪽) 담양군 문화체육과장과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인 장성군 장성읍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번 교차기부를 추진했다.  
두 사람은 공무원 교육동기로 각자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진목을 다져

왔다.  
양 기관 직원들까지 기부금에 동참하면서 담양군 문화체육과 직원 20명과 장성읍 직원 20명이 각각 참여했고 지역 답례품도 주고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한 양 지자체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 “중2 수학여행 통크게 쏜다” 강진군 일본 역사탐방 지원

### 9개교 211명 전원에 100만원씩

강진군이 지역 중학교 2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 역사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은 군비 약 2억원을 들여 지역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에게 1인당 체험 경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부 학생을 선발해 운영하는 데에 비해 강진은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관내 중학교 9개교 총 211명의 학생이 일본 오사카 및 교토 지역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지난 23일 강진여자중학교 2학년 72명이 일본 오사카로 역사문화탐방을 떠났다.  
강진여중 이후 3차례에 걸쳐 탐방길에 오른다.  
학생들은 그동안 교과서로만 배웠던 독립운동의 현장과 역사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일본 역사문화 탐방에 나선 강진여중 학생들이 탐방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램을 체험한다.  
지역관광 개념의 체험학습이 아닌 국제화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역사문화 탐방, 진로 탐색 등 새로운 체험학습의 장으로서의 교육이 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인재 양성에 대한 군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라며 “지역의 꿈나무들이 해외에서 견문을 넓혀 창의성과 미래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천불천탑 신비’ 화순운주문화축제 내일 개막

### 30일까지...경로위안잔치도

제24회 화순운주문화축제가 26일부터 30일까지 천불천탑 신비가 깃든 도암면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일어서는 와불, 감동을 이어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도암면민의 날과 경로위안잔치가 함께 열린다.  
화순운주문화축제는 첫째 날인 26일 도암농약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오전 10시 개막식에 이어 신발양궁, 바구니 율기 등 도암면민 체육행사, 노래자랑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면민노래자랑에는 ‘자기야’의 가수 박주희 등이 초청가수로 출연한다.

축제 둘째 날인 27일 석가탄신일에는 운주사에서 불상제막식이 있다.  
버스킹 공연, 커피 바리스타 체험, 다육 등을 전시하며, 관내 지역 특산품 소개 및 판매,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체험 및 마술쇼,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체험, 투호놀이 등 각종 체험행사가 열린다.  
마을별 단체 사진과 일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도암사람들 사진전’도 개최된다.  
박용문 축제추진위원장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가족, 지인과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함평군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 선정...22억 확보

### 업다면 방울토마토 농가 0.9ha 규모 자동화 순환식 수경 재배체계 구축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2023년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함평 업다면 농가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곳 농가는 0.9ha 규모 방울토마토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공사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내 온실을 완공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용자 포함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과 자동화 순환식 수경(양액) 재배 체계를



함평군 업다면에 조성할 스마트팜 온실 조감도. <함평군 제공>

구축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팜 온실은 작물 도양 환경까지 최

적화해 생육 관리를 하며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 낸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화순군, 무인 측정기로 24시간 악취관리

### 2022년 4대 이어 올해 2대 추가

화순군이 악취관리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24시간 상시 악취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사진)를 추가로 설치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 4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춘양면 축산농가 주변에 추가로 2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악취측정기 추가 설치로 화순군에는 퇴비 공장 2개소, 양돈농가 4개소 등 총 6대의 측정기가 설치돼 있으며,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무인악취측정기는 복합악취센서로 실시간 악취측정이 가능하고, 악취 임계치 이상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람 기능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웹/앱 통합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즉



시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인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의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